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유로공동채권 발행 성공이 주는 의미

- 유럽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유로공동채권을 발행하기로 한 유럽안정기금(EFSF)이 첫 번째 채권발행에 성공함에 따라 유럽 재정위기국의 채무불이행 및 유로화 가치하락 방지에 대한 금융시장의 기대가 증대됨.
 - 1월24일 아일랜드 구제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50억 유로 규모의 EFSF 채권옥션에 8배가 넘는 445억 유로의 자금이 집중됨에 따라 EFSF는 낮은 금리로 채권발행이 가능해 졌으며 AAA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됨.
 - 채권옥션 대기자금 중 38%는 최근 자본이 풍부해진 아시아권에서 출처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채권발행액 중 20%는 일본의 정부 관련 기관에 돌아감.
 - 풍부한 대기자금으로 볼 때 금년 중 총 265억 유로의 채권발행을 목표로 하는 EFSF는 추가 채권발행에서도 성공할 것으로 예상됨.
 - 유로공동채권은 결국 각국의 중앙은행, 국가투자기금, 거대 민간투자기금으로부터 안전하면서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는 자산이라는 인식을 형성함.
 - 5년 만기 유로공동채권의 금리는 풍부한 수요에 힘입어 2.8%로 형성되었으며 이는 가장 안정한 자산으로 평가되는 미국(2%), 독일·영국(2.3%대)의 국채 금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.
 - 이와 같은 유로공동채권에 대한 전 세계 금융시장의 호응은 EFSF의 권한강화, 유로지역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, 재정긴축에 대한 로드맵이 3월말로 예정된 구조기금 종합화 방안에 반영될 것이란 예상에 근거함.
- 다만 시장은 유로공동채권이 최상위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EFSF의 과도한 채권 발행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경계하는 우려의 신호를 보냈으며 재정위기국에 대한 EFSF의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이들 국가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을 요구함.
 - EFSF는 AAA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채권발행금(50억 유로) 중 상당액(17억 유로)을 버퍼 자본으로 사용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관행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FSF가 목표치를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아짐.
 - EFSF의 6.05%의 아일랜드 대출금리는 아일랜드의 국채금리(7.8%)보다 낮지만 자금조달 비용이 3% 미만이기 때문에 EFSF의 대출금리 인하 여지가 존재함.

(Financial Times 1/25, WSJ 1/25)